



2020년 2분기

부리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 코로나19 관련 부리산업의 대응방안 도출 -





●●● 목 차 ●●●

■ 코로나19 관련 부리산업의 대응방안 도출

요 약 2

I. 코로나19에 따른 부리산업의 주요 현안 3

II. 코로나19에 따른 부리산업의 대응방향 도출 5

III. 향후 전망 및 시사점 11

- 본 보고서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ISC) 고유기능으로 부리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 작성하였습니다.
- 보고서에서 활용한 데이터는 조사시점과 기준이 서로 다른 국가 승인통계 및 민간통계 자료로 개별 통계표나 차트 등을 인용할 경우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활용 및 인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원 출처를 명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참고문헌 및 데이터 출처는 본문의 자료 및 후면에 명시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이슈리포트'를 위한 의견이며 전국의 부리산업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리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 오성민 과장(070-4269-9388, osm@koreamold.com)

□ 코로나19 관련 부리산업의 대응방안 도출

- 코로나19 사태가 5월 이후 재확산되며 다시금 주요 산업용 소재와 부품·장비 등의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부리산업의 국내 수요는 충격이 없었을 때와 비교하여 5% 이하로 하락하고, 특히 자동차·기계 등의 수요가 10% 이상 감소하여 중소(벤더)기업이 대부분인 부리산업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원자재에 대한 해외조달 차질과 국내·외 수요 위축으로 부리산업의 주요 업종별 생산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전 세계적인 수요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조선과 연계된 부리산업의 생산이 전방위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선행지표들이 반등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나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국내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영향에 따라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임
- 코로나19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돌발 상황일 뿐만 아니라 확산속도가 매우 빨라 작은 규모의 뿌리기업이 독자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음. 정부기관이나 자체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뿌리기업이 코로나19 대책을 시행 중인 경우는 각각 10.0%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정부지원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슈 중의 하나는 맞춤형 지원임. 지원수요와 괴리가 있는 공급자 중심의 지원만으로 소기의 지원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임. 코로나19에 따라 뿌리기업의 기업 경영 전략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초래될 것인데 이를 감안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정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 각종 설문결과 뿌리기업 중 절반 이상이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많은 부정적 영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코로나19에 의한 환경의 변화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 확실한 가운데 뿌리기업에 대한 코로나19의 부정적 파급의 강도와 범위가 점점 커지면서 장기화될 경우 실감하는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부정적 영향 유발요인의 발생빈도나 범위는 코로나19의 확산범위와 시기에 따라 더욱 커질 것이며 해당 요인에 의한 부정적 영향의 크기는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정부는 선별적 지원대책의 강화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코로나19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에 만전을 기하되 금년 들어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기업에 더욱 선택과 집 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을거라 생각함. 특히, 단기간에 급격한 실적 악화를 경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해 중소기업 지정제도에 의한 재해 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관련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임
- 뿌리기업의 입장에서 현재와 미래에 대면하게 될 현실적인 대응을 위해 여섯가지의 시사점을 활용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① 현금흐름과 가용자본의 관리강화 및 수익성 개선방안 점검, ② 합리적 절세전략을 통한 현금 흐름의 증대, ③ 투자유치 및 자금 조달 방안 마련, ④ 공급망 프레임워크에 대한 재점검, 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의 재편, ⑥ 위기대응 체계에 대한 점검

I | 코로나19에 따른 부리산업의 주요 현안

- (코로나19 확산으로 심화되는 수요 위축) 5월까지 진정기미를 보이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뿌리산업을 포함한 제조업은 소비·내구재를 중심으로 내수위축이 심화되고, 주력 제품 수출이 감소하고 있음. 그리고 단기간 내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다시금 주요 산업용 소재와 부품·장비 등의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 중소기업연구원 통계를 기반으로 코로나19의 충격이 하반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뿌리산업의 국내 수요는 충격이 없었을 때와 비교하여 5% 이하로 하락하고, 특히 자동차·기계 등의 수요가 10% 이상 감소하여 중소(벤더)기업이 대부분인 뿌리산업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1] 코로나19가 뿌리산업 업종별 미치는 영향

* 구분 : ↘ 다소하락(2~5%), ↓ 크게하락(5~10%)

업종	내수	수출	요인
금형	↘	↓	- 자동차·가전 등 수요산업의 생산, 투자위축
주조	↓	↓	- 해외공장과 물류차질로 국내생산 대체 가능성 상존
단조	↓	↓	- 수요산업의 생산과 투자 위축, 생산활동 부진
용접	↘	↓	- 조선분야 건조일정 차질, 발주처 인수지체로 인수지연 가능성 확대
표면처리	↓	↓	- 수출 및 내수감소, 가격하락, 중국 블록공장의 생산 감소 등
열처리	↓	↓	- 내수 축소로 국내생산 위축, 간헐적인 생산 중단 발생

* 출처 : 산업연구원 “코로나10의 주요 제조업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

- 한편 금형업종의 경우 의료용품 위주의 대량수요 발생으로 수요 감소를 일부 상쇄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으나 전반적인 위축세를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용접·표면처리 산업은 자동차·전자·조선의 수요 감소와 가격하락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앞으로도 어려움이 전망됨
- (수요 위축으로 생산 감소 불가피)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원자재에 대한 해외조달 차질과 국내·외 수요 위축으로 뿌리산업의 주요 업종별 생산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 금형업종의 경우 단기적(아직까지)으로는 중간재 재고 여유가 있고 해외 경쟁업체의 생산 차질로 일부 대체효과가 발생하며 영향은 다소 적다고 판된되었으나 팬데믹이 장기화하고 전 세계적인 수요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조선과 연계된 뿌리산업의 생산이 전방위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임



- 해외 생산도 글로벌 수요 감소와 아직까지 지속 중인 지역 간 인력이동 제한으로 인해 현지 생산 설비 가동률 하락이 본격화되며, 생산 규모가 1차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연말까지 이어진다면 업종별 해외 생산·가공 기지 비중이 높은 기업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대내·외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 증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선행지표들이 반등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나 코로나19의 지속으로 국내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영향에 따라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임
- 그림 1-2와 같이 업종별로 살펴보면 단조업종에서 내수가 위축되고 있다는 응답이 76.5%로 가장 높았고 금융상황이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41.2%였으며 금형분야는 내수가 위축되고 수출이 감소한다는 응답이 각각 66.5%와 40.7%로 나타났고 용접분야는 조선업과 연계한 생산차질이 59.5%로 가장 높았음. 또한 표면처리와 열처리 분야도 내수위축과 수출감소가 72.6%와 34.5%로 나타남

[그림 1-2]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의 파급경로

(단위 : %, 응답 비중)						
업종	공급망 차질	수출감소	내수위축	환율, 금융 불확실	생산차질	기타
금형	36.5	40.7	66.5	25.3	25.2	2.7
주조	11.8	23.5	76.5	41.2	11.8	5.9
단조						
용접	19.0	23.8	23.8	21.4	59.5	4.8
표면처리	28.2	34.5	72.6	34.0	27.3	3.8
열처리						

* 금형(기계), 주조·단조(소성가공), 표면처리·열처리(소재) 분야 통계로 종합

* 출처 : 산업연구원 “국내 제조업체들이 바라본 코로나19 충격의 영향”

- 그림 1-3에서 보는바와 같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뿌리기업이 받는 피해 정도(부정적 영향의 강도)를 세부 업종별로 추산해 본 결과, 대부분이 부정적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업종별 피해 정도를 산출해 보면, 전체 업종 기준으로 보통 수준(5)의 부정적 영향을 웃도는 8.5~8.8 수준으로 나타나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악화와 부정적인 영향으로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됨





[그림 1-3]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정도(부정적 영향의 강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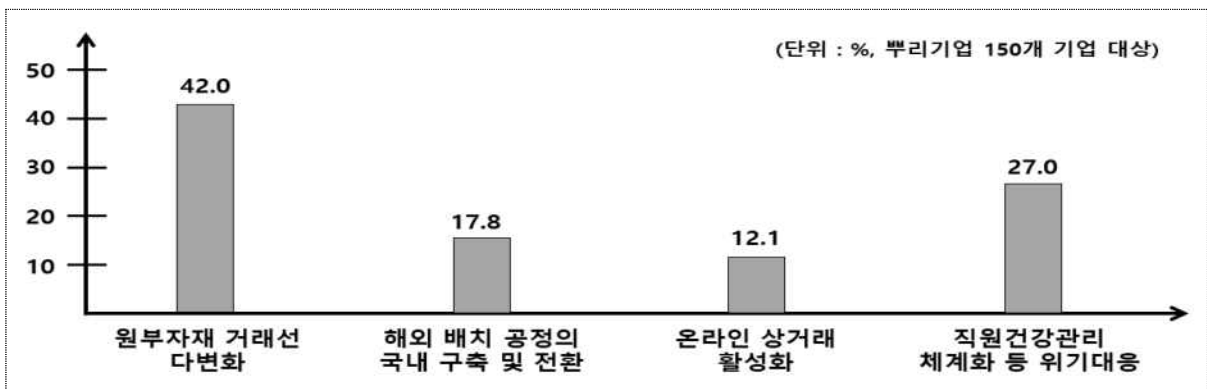


* 출처 : 산업연구원 “국내 제조업체들이 바라본 코로나19 충격의 영향”

II | 코로나19에 따른 부리산업의 대응방안 도출

- (뿌리기업의 지원대책 수요 및 정책방향 관련 의견) 코로나19는 전례를 찾아 보기 힘든 돌발 상황일 뿐만 아니라 확산속도가 매우 빨라 작은규모의 뿌리기업이 독자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음. 정부기관이나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뿌리기업이 코로나19 대책을 시행 중인 경우는 각각 10.0%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 정부지원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슈 중의 하나는 맞춤형 지원임. 지원수요와 괴리가 있는 공급자 중심의 지원만으로 소기의 지원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임. 코로나19에 따라 뿌리기업의 기업경영 전략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초래될 것인데 이를 감안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져야 정책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됨
-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뿌리기업의 전략 방향을 중심으로 정부 지원 희망 분야를 조사하였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부자재 거래선의 다변화 전략에 대한 지원 희망 수요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직원건강관리 체계화 등의 위기대응, 해외 배치 공정의 국내 구축 또는 국내로의 전환 순으로 지원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2-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뿌리기업의 전략방향



* 출처종합(산업연구원 실태조사, 뿌리ISC 자체조사 등)

- 한편 코로나19에 따라 부리산업 및 기업정책 방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는데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돌발사태가 앞으로 연례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정책은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돌발사태의 상시화를 감안한 정책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관련 의견을 조사하였음

[그림 2-2] 코로나19 상시화를 대비한 정책방향

(단위 : %, 뿌리기업 150개 기업 대상)

정부정책방향	응답비율
AI활용의 기업위기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등 사전적 대응시스템 강화	14.6
스마트공장, 스마트 일터혁신 등 기업의 디지털 변혁 지원 등 기업자체 역량강화	16.7
피해 대상 기업의 신속식별 및 맞춤형 지원 등 정부주도의 컨트롤 기능 강화	42.4
국내 전자상거래, 온라인 수출 등의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및 제도 개선	6.7
기업지원 수요의 신속파악을 위한 메뉴얼화 시스템 구축	19.7

* 출처종합(산업연구원 실태조사, 뿌리ISC 자체조사 등)

-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기업의 신속 식별 및 맞춤형 지원 등 정부 주도의 컨트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율(42.4%)이 가장 높았으며 기업의 대응을 위한 역량강화 등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율도 각각 10~20%로 조사됨.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컨트롤 타워 역할 속에 기업의 역량을 키우고 돌발사태의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뿌리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음

[그림 2-3] 코로나19 상시화를 대비한 기업지원 정책방향

(단위 : %, 뿌리기업 150개 기업 대상)

정부정책방향	응답비율
중국 등 과도한 특정 수출시장 의존 축소	26.6
수출용 원자재 안정적 확보	36.0
특정지역 의존형 해외생산·우회수출 전략의 개선	14.8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활용한 글로벌 생산수출 활동의 지능적 관리	10.3
오프라인 수출과 온라인 수출의 조화로운 활용	5.0
항바이러스, 도시오염 지능적 관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7.2

* 출처종합(산업연구원 실태조사, 뿌리ISC 자체조사 등)

- 기업지원정책 방향으로는 수출용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36.5%), 특정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 축소(22.7%)의 정책을 강화해줄 것을 바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돌발사태에 의해 공급망이나 수요망의 붕괴가 일어나더라도 피해의 파급을 최소화하면서 어느 정도의 경영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기업지원정책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이상의 조사 결과는 뿌리기업 중 절반 이상이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많은 부정적 영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코로나19에 의한 환경의 변화는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이 확실한 가운데 뿌리기업에 대한 코로나19의 부정적 파급의 강도와 범위가 점점 커지면서 장기화될 경우 실감하는 어려움이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부정적 영향 유발요인의 발생빈도나 범위는 코로나19의 확산범위와 시기에 따라 더욱 커질 것이며 해당 요인에 의한 부정적 영향의 크기는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따라서 정부는 선별적 지원대책의 강화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코로나19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에 만전을 기하되 금년 들어 수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기업에 더욱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을거라 생각함. 특히, 단기간에 급격한 실적 악화를 경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재해 중소기업 지정제도에 의한 재해 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관련 지원을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임
- 앞서 뿌리기업은 매출 감소와 원부자재 확보의 애로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코로나19에 의한 연속적인 매출 감소는 기업활력 저하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큰데 앞으로도 원자재 확보가 원만치 않을 경우 코로나19 때문에 지연되었던 수출 기회의 포착에도 불리하게 될 것임. 이에 따라 뿌리기업의 활력 복원과 포스트 코로나의 기회 포착에 기여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맞춤형 지원-①) 원부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이와 연계하여 향후 코로나의 진정 시점에서 기대되는 수출물량의 확보가 가능할 것임. 반면에 각국의 경쟁적인 금리인하와 연동된 원/달러 환율의 불안과 상승세 때문에 뿌리기업의 원자재 수입이 원만치 않거나, 환율 상승기의 원자재 수입은 원가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정부는 수출용 원자재 수입을 위한 저리 용자뿐만 아니라 수입 관련 환위험 제거 등 가격 측면의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함
- (맞춤형 지원-②)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과 수출 실적의 악화 등과 같은 우려 해소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수출경기 충격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시장 개척이나 시장 다변화의 성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해외수요 복구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수출시장 개척 또는 다변화뿐만 아니라 내수진작과 연계된 수출 활력 제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맞춤형 지원-③) 코로나19 이후 스마트 일터 혁신, 온라인 수출 강화와 같은 디지털 변혁, 기업 재구조 전략을 통해 기업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뿌리기업이 많아질 것이라 생각함. 해외생산 거점이나 수출시장의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거나 4차산업혁명과 연계된 사업 진출로 재도약을 도모하는 기업도 늘어날 수 있음
- 따라서 기존 정책이 이들의 기업혁신이나 기업 재도약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지 우선 점검하고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유사 돌발사태가 재발하더라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산업 및 기업정책의 수립 노력도 추진되어야 함. 예컨대, 코로나19와 같은 돌발사태의 사전적 감시체제 구축, 사태 해결에 긴요한 국내 관련 시설·제품의 한시적 공적자원화를 위한 법·제도 확립, 사태의 조기해결을 위한 공조 의제(예: 사태 방지용 제품의 한시적 무관세화 등) 확립 및 협의채널 구축 등이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임

III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코로나19로 인해 성장둔화를 넘어 심각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현 상황의 대안으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나 뿌리기업 대표자들은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세제혜택의 효과는 아직 기대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고 있음
- 이에 뿌리기업의 입장에서 현재와 미래에 대면하게 될 현실적인 대응을 위해 아래에서 구분해놓은 시사점을 활용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사점-①, 현금흐름과 가용자본의 관리강화 및 수익성 개선방안 점검) 기업은 정상적인 비즈니스 사이클을 벗어난 현 상황에서 자사의 가용자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함. 현금 및 수익 변동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예측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정립하며, 자본과 현금 흐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유지해야 함
- (시사점-②, 합리적 절세전략을 통한 현금 흐름의 증대) 적극적인 절세방안을 검토하여 현금흐름의 증대를 추진할 수 있음.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절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데 2019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검토 또는 경정청구 기한 내에 있는 국세환급 기회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인세 절감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지방세에 대한 환급 기회를 모색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극대화 할 수 있음
- (시사점-③, 투자유치 및 자금 조달 방안 마련)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는 경우, 단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새로운 경로를 비롯해 대출상환 계획 수립을 위한 장기적 자금 조달 방안도 모색해야 함. 긴급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활용한 투자자 유치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더불어 금융기관과 원활한 소통과 관계유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가 발표하는 기업에 대한 특혜정책을 빠르게 적용하는 방법에 대비해야 함
- (시사점-④, 공급망 프레임워크에 대한 재점검) 다수 기업들이 공급망 중단 위기에 대비해 공급체계의 리스크를 식별하여 유연성을 확보하는 등 공급망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음. 자사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경기악화가 공급망 제휴사와 네트워크에 미치는 영향 또한 연계하여 검토할 경우, 원가 및 수익 측면에서 효율적인 체계 재편이 가능할 것임



- (시사점-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의 재편) 기업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검토하여 수익성 제고 차원의 체질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뤄야 함. 수익적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으나 비주력사업에 대한 투자중단과 매각방안을 검토하되 해당 의사결정은 단순히 자본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집중해야 할 사업분야를 재조명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고 이같은 사업구조 분석으로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임
- (시사점-⑥, 위기대응 체계에 대한 점검) 재난·재해·지정학적 위기·브랜드 및 평판위기·금융 및 재정위기 등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극단적 상황에서 단계별로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함. 그러나 기존에 이러한 위기대응체계를 수립했다 하더라도 각 위기상황에 대한 일괄적인 적용이 과연 효과적인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함



참 고 문 헌

- 코로나19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2020. 4, 산업연구원)

- 중소기업 동향(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2020. 2, 중소기업연구원)

- 코로나19의 경제 및 산업 영향 점검
(2020. 3, 삼일회계법인)

- 코로나19로 인한 거시경제적 영향 및 대응방향
(2020. 3, 삼정KPMG 경제연구원)

- 코로나19에 따른 기업의 대응방안
(2020.3 딜로이트 코로나19 기업경영위기 지원센터)

- 제조업 육성을 위한 지원확대 및 개선방안 연구
(2012, 대전발전연구원 김기희 책임연구위원)